

## 러시아, 수송기 업데이트 계획중

러시아 공군은 노후된 수송기를 업그레이드해서 신형항공기 도입 지연으로 위협받고 있는 신속 수송능력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다.

이 계획의 핵심은 군 항공수송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IL-76 전술수송기의 수명연장 계획이다. 공군 사령관인 아나톨리 코르누코프 장군은 동체가 연장되고 Perms PS-90 엔진을 장착한 신형 IL-76MF가 2년 이내에 일선에 배치되기를 바라고 있다. IL-76 항공기를 제작하고 있는 타슈켄트의 MAPO 제작장에서는 현재 8대분의 동체가 제작중에 있다.

이 밖에도 러시아 항공수송부대에서는 현재 노후로 비행이 금지된 An-124 20대를 다시 운용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 항공기들은 주로 엔진신뢰성 문제와 스페어부품의 공급 중단으로 운용이 중단되어왔다.



러시아는 신형항공기 도입으로 수송능력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의 터보프롭 항공기인 An-22는 현재 개발중인 An-70 프롭팬 수송기의 일선 배치에 맞춰 2~3년 이내에 퇴역할 것이라고 코르누코프 장군은 밝혔다. 현재 An-70은 러시아 공군 구매 목록 최우선 순위에 있을 만큼 러시아 공군이 An-70에 거는 기대가 크다.

## 미 해군, 차세대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발사 시험

미 해군과 미 공군이 합동으로 진행중인 레이더연사의 AIM-9X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서 지난 3월 18일 최초의 실제발사 시험을 수행했다. 차세대 공대공 단거리 미사일인 AIM-9X 미사일의 최초발사는 차이나레이크의 해군 항공전 센터에서 운용중인 해군의 보잉 F/A-18C 전투기가 수행했으며 발사 조건은 고도 만5천피트, 아음속 영역이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보잉 F-

15전투기에서 초음속 비행중 발사와 표적용 무인기에 대한 실제 발사 등이 수행될 예정이다.

## 팬텀웍스, UCAV 계약 따내

보잉(구 MD)사의 팬텀웍스가 미 DARPA(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로부터 지상공격및 방공망 제압용 무인전투기(UCAV)의 개념시험기의 제작에 대한 계약을 수주했다.

UCAV의 개념시험기 연구및 제작에 대해 보잉사가 수주받은 내용은 개발기간 42개월, 총비용 1억3천1백만 달러의 계약이다. 보잉사의 UCAV개념안은 꼬리날개가 없고 스텔스 능력을 가지며 소형 정밀유도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보잉사는 2002년까지 2대의 시제기를 제작해서 비행시킬 계획이다.

개발에 따른 비용은 DARPA와 미 공군이 1억1천만달러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잉사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DARPA의 UCAV 신기술 시험 계획은 UCAV가 2010년 이후의 전장에서 유인항공기의 지상공격임무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검증해보기 위한 것이다.

팬텀웍스는 작년 12월에는 재사용발사체 개념시험용인 X-37 기술시험기의 제작에 대해서

NASA와 비용분담식 제작계약을 맺은 바 있다. 팬텀웍스에서는 이 밖에도 DARPA와 카나드 로터/윙 수직이착륙 항공기의 축소형 무인기 제작에 대한 비용분담제작 계약도 맺고 있다.

보잉사의 UCAV 설계는 보잉에서 개발한 X-36 소형 무미익전투기 기술시험기에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인트 루이스의 팬텀 워크 공작장에서 제작된 2대의 X-36은 현재 새로운 비행제어기술을 테스트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비록 세인트 루이스쪽에서 UCAV의 설계에 대한 주도권을 잡을 지라도 보잉사의 시애틀 공장쪽에서 임무통제시스템과 전체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될 전망이다.

### 오스트리아, 알루엣 III 야간 국경감시에 활용

오스트리아 공군은 특수장비를 부착한 알루엣 III와 벨 OH-58 헬리콥터를 국경 지역의 야간초계임무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암호명 '올빼미'라고 명명된 이 임무는 전방감시력 강화의 일환으로 2월부터 시작

되었으며 국경 방어력을 한 단계 높이게 될 것이다.

오스트리아 내무부의 관할 아래 운용되는 6대의 헬리콥터는 EU에서 제공한 신형 감시시스템을 장비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의 운용비용은 오스트리아에서 부담한다.

2대의 OH-58은 비엔나 근처의 툴린 랑겐레반 기지에서 운용되고 2대의 알루엣 III는 헝가리 접경의 푸니츠 근교의 작은 기지에서 운용 중이다.

알루엣 III헬리콥터들은 2.5km 거리까지 밝힐 수 있는 3천만 축광의 나이트선 서치라이트를 장비하고 있으며 이 장비는 적외선 필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 헬리콥터들에는 전방향 스캔식 FLIR(Forward Looking Infra Red)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고 여기서 포착한 영상은 GPS 수신기 및 무빙 맵 디스플레이에 연동되어 있다. 맵 디스플레이의 자료들은 내무부의 법적 행동의



오스트리아 공군은 특수장비를 부착한 헬기를 국경지역에 투입하였다

근거자료로 삼기 위해 녹화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이 헬리콥터들에는 야간용 적외선가늌의 운용도 가능하며 비상시에 특정장소에 대한 조명지원임무 등에도 사용될 수 있다.

### 리팔 광학장비 시험 개시

리팔에 장착될 톰슨 CSF의 전방광학감시 시스템(FSO)이 닷소 펠컨 20 항공기에 장착되어 비행 시험을 시작했다. 이 장비는 리팔 전투기 레이더를 작동시키지 않고도 적외선 및 영상자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준다.

FSO는 전천후 공대공 및 공대지 탐색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서방세계에서는 최초로 3-5미크론 대역의 파장을 이용해서 습기가 많거나 비가 오는 상황에서 훨씬 뛰어난 탐지 능력을 발휘한다고 톰슨 CSF 옵트로닉스는 밝히고 있다. 현재 사용되는 광학영상장비는 주로 8-12미크론의 파장을 가지고 있다.

톰슨 CSF 옵트로닉스의 사업 부장인 장 끌로드 베그네르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FSO의 여러 기능 중에서 TV영상 포착 기능만 시험되었으며 적외선 영상장비에 대한 시험은 수 주후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